

# 국민의당 창당 총선 3각경쟁 치열

### 안철수·천정배 투톱 체제 원외민주당 등 통합가능성 '이승만 국부' 등 약재 극복 호남지지를 하락 반전 급선무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을 공동대표로 한 국민의당이 2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공식 창당. 4·13총선은 3각 구도 속에서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초대 대표로 안 의원과 천 의원을 낙점 '투톱' 체제로 출범했다. 김한길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해, 총선은 '스리톱' 체제 아래 치를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의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를 것을 자신하면서 제 야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야권이 3당 체제로 총선이 치러지는 것은 1986년 15대 총선 이후 20년 만이다. 당시 야권은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통합민주당으로 치러졌다.

야권 내부 세력의 분열 왜 총선을 치르는 것은 2004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져 맞붙었던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야권분열=필패'라는 공통된 인식 속에서 갈라진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경쟁을 우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새누리당이 총선 목표 의석수로 180석 이상으로 잡은 것도 야권 분열의 반사이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세 확장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향후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김민석 전



2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공동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천정배 의원이 단상에 올라 당 최고위원들을 지명한 뒤 서로 바라보고 있다.

의원의 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당은 현재 17명인 의원들이 추가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며 총선에 맞춰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한동안 영입에 공을 들였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롯, 새누리당 김성식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 총선까지 힘을 실게 됐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더민주는 먼저 당의 전열을 정비, 총선체제로 돌입했다. 지난 22일 박영선·우윤근 의원 등 16명의 위원이 포함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27일에는 7명으로 한 비

대위 구성도 끝냈다. 운동권 중심의 기존 색깔을 빼고 세대교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 모두 총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야권 패권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승부를 벌이게 됐다.

문제는 국민의당은 창당 추진 초기에 컨벤션 효과로 상승장구를 달리는 듯 했지만 한산진 창조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 등 돌발 약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꺾였다. 지지기반이던 호남에서의 지지를 하락해 반전이 급선무다.

또 전국정당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야권 확장도 과제로 제시된다. 현역 의원 17명

가운데 11명이 호남 의원으로 채워진 상황을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호남 적통성'을 둘러싼 양당 간 주도권 경쟁은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적자' 이미지를 위해 이회호 여사를 앞세웠고, 더

민주의 DJ 3남인 김홍걸 박사를 영입하며 맞불을 놓을 정도로 가시율이 팽팽했다.

국민의당이 창당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호남을 찾은 것도, 더민주 김종인 위원장이 5·18 지역을 참배하며 국보위 전력을 사과한 것도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인간 힘으로 해석된다. /이성주 기자

## 이상돈, 국민의당 합류 결정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2일 국민의당 합류를 결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로, 안철수 공동대표가 꾸준히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 /이성주 기자

## 새누리당 도당 민생119 보고대회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3일 오후2시반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민생 119 전북본부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대회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접수된 556건의 지역민원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운천 민생119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신광영 기자

## 도시농업 조례 제정 세미나

전북도의회는 2일 전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북도 도시농업 조례 제정 방향 검토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원(전주)은 도시농업 조례 제정 방향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도시와 농촌의 공생, 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시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최근 도시농업이 생명의 가치를 비롯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직거래 활성화로 도 농산물 및 농촌체험 연계와 젊은 귀농 귀촌인들의 농촌 유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시농업은 "미래세대에게 생명, 자연, 농업농촌, 먹거리의 소중한 교육(학교텃밭, 원예활동)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양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송성환 의원(전주3)은 "도시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도시민과 농업인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공동체 활성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 "지금부터 완전히 바뀌야 총선 승리 가능"

###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북 방문... 변화 필요성 역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은 야당대야야 한다"며 강한 야당 만들기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내부적 계파 갈등으로 국민의 소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지금부터 완전히 바꾸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미래 희망은 없다는 비판이 많다"며 "국민들의 희망을 위해 정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완전히 변화하지 않고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에게 보여줘 지지를 얻고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내 내년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민전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컷오프 20%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역의원의 20% 컷오프는 물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맞다"면서 "이미 탈당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읍과 군산지역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 경쟁을 거쳐야 한다"면서 "전략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면서 "전략공천을 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지지도 등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후보들까지 경쟁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동영 전 의원의 전략공천 요구보다와 관련된 당직자 조치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안부전화를 물었을 뿐이다. 이는 바가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신광영 기자

## 영업 인사들, 전북도민들과 함께

### 더민주 '더불어콘서트' 성황리 마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외부영업 인사가들이 참여하는 '더불어콘서트'가 2일 전 주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더불어콘서트는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현안 해결방안에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김병관 웹툰 이사회 의장,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양항자 전 삼성전자 상무, 박희승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수

석부장판사, 이수혁 6자회담 수석대표, 오기형 동북아 경제전문 변호사, 김민 빈클리퍼니 대표, 김정우 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 과장,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원 소장, 김민영 변호사, 오성규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주민 세월호 법률 변호사 등 영업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더불어콘서트는 표 위원을 비롯한 영업인사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무도실들의 공연에 이어 표창원 비대위원과 박주

민 세월호 변호사 강연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도민들과 영업인사들이 6~7개의 그룹별로 모여앉아 대화를 나누는 '아고라'가 진행돼 413 총선 출마 여부와 영업과정 등을 소개했다.

한편 영업인사들은 이번 행사에 앞서 전주 흥남문 세월호 농성장을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 함육미를 경기 전 앞에서 한복을 입고 플래시몹 행사를 가졌다. /신광영 기자

## 더민주 하정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의 9번째 영입인사인 하정열 예비후보(사진)의 선거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2일 오후 2시 정읍시 수성동 성림프라자 2층 하정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하 후보를 비롯한 더민주 당원과 지지

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개소식이 성황을 이뤘다.

김원기·임재정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춘진·최규성·최재성 국회의원과 김생기 정읍시장, 박우경 고창군수, 이화수·이호근·장병식 전북도의원, 우천규 정읍시장 및 시의원, 이상호 고창군의회장 및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와 박희승 전 수원지법인양지원장, 양항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비롯해 정읍출신 김병관 웹툰이사회 의장과 이수혁 전 6자회담수석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을 위해 영입한 이른바 '허벤즈'가 총출동했다.

하정열 예비후보는 "80년 정통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고 정읍의 자존심을 지키는 진정한 정치인이 되겠다"며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처럼 시민들 곁에서 애환을 함께하며 눈물을 닦는 덕 많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 저 총선 출마합니다

### 김종희 학생강당 이사장, 총선 후보 시작

김종희 학생강당 이사장(사진)은 2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20대 총선을 향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2월 31일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국민의당 창당발기인대회와 전북 도당 창당대회를 통해 정권교체와 총선승리를 다짐하며 신당 건설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이날 김 이사장은 "전북에서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해왔다"며, "고인 물이 썩듯이 오랜 기간 전북에서 기록권을 유지해온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민생은 내팽개쳐 둔지 오래"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제·부안은 지난 12년간 인구 감소, 안전지수 최하위, 재정자립도 최하위 등 쇠퇴일로로 걸었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김제·부안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많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김종희 학생강당 이사장은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에서 태어나 같은 지역에서 30년 넘게 무료 인문학 교육활동을 해온 문화교육전문가다. 무료 교육을 해온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아버지 화석 김수연(90)옹의 뜻을 이어 1:1 맞춤형 수업을 통해 각계각층 7,000여명의 제자를 배출해왔다.

또한, 김제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및 자기주도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 경찰서와 연계한 학교폭력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김제=박노태 기자



## 새누리 천상덕 예비후보, 완산갑 출마 선언

새누리당 천상덕 예비후보(사진)는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완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천 예비후보는 "도시정비 전문가의 경험을 살려 신도시 개발과 혁신도시 조성으로 고사 일포에 있는 전주시 원도심을 부활, 재생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천 예비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도 아니요, 먹이를 찾아 이합집산하는 철새정치도 아니다"며 "준비된 전문성으로 민생경제의 깊은 곳을 아우르며 주거문화를 정비하듯 후진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 더민주 성은순 예비후보, 무료 급식봉사활동

더불어민주당 성은순 예비후보(전주 덕진·사진)는 2일 전주 큰 영광교회에서 무료 급식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성 후보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여 동안 지역어르신들 위 한 배식, 설거지 등을 도왔다.

성 후보는 "봉사활동이란 단순히 어른들께 도움을 드리는게 다가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 밝은 미소와 온정까지 함께 나누어 드리는 것"이라며 "주민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무소속 이석권 예비후보, 익산을 출마 선언

무소속 이석권 국회의원의예비후보(사진)는 2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으면 제일먼저 달려와 들어주고 해결 해 주는 진짜 익산의 큰 일꾼이 되고 싶다"며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청년의 기상으로 당당하게 책임지는 '시민이 주체요', '시민이 주인인 정치', '국민이 집단 세상',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익산의 희망, 익산의 내일'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출마를 선언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 더민주 유희태 예비후보, 전통시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국회의원의예비후보(사진)는 설명절을 맞아 완주와 진무장지역의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찾았다.

유희태 예비후보는 "어려운 농촌의 문제는 지자체에서 자체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고질화했다"면서 "일손이 부족한 고령과 농촌의 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 개발과 안정적인 관료 확보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완주=이종복 기자

